



초록달팽이는

-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세상을 응원합니다.
- 경쟁을 넘어 연대를, 차별을 넘어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합니다.



‘안녕, 설화야’ 시리즈를 통해 충주가 품고 있는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쓰는 과정은 저희에게 큰 기쁨입니다.

빛바랜 기록들, 부족한 필력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모여 책으로 결실을 보니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이 작은 책 한 권이 충주 설화, 더 나아가 충주라는 지역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책을 펴내며」 중에서



초록달팽이

글 설화창작소 예성글패 그림 구금화·박새봄

홍시와 호랑이

안녕, 설화야

안녕, 설화야

홍시와 호랑이

글 설화창작소 예성글패 그림 구금화·박새봄



글 설화창작소 예성글패

〈설화창작소 예성글패〉는 충주의 옛 지명인 ‘예성’에 글을 쓰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글패’를 더해 만들었습니다. 충주 지역에 전해오는 설화 중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고, 풍부한 상상력을 더해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짓습니다. 그동안 펴낸 책으로는 설화집 『안녕, 설화야』 『휘리릭 쿠우웅』 『대문산 할미 함박웃음』 등이 있습니다.

그림 구금화·박새봄